

이긴자 일대기 [6]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나이다

이제부터 나를 의식하지 말라고 하시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초초로 바라보며 고도로 사모하였습니다. 이 자유율법은 꼭 나를 의식해서만 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의식하려는 마음만 일어나도 '나를 의식하는 음란죄'를 범한 결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그림자 자유율법>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인간의 생각을 하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도 여지없이 <그림자 자유율법>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있어도 그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지 못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상태로 '말하지 못하는 의식죄'로 여지없이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부족한 까닭에 다른 생각이 나오려고 하였으므로 가져 없이 자유율법에 걸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긴자를 세우실 때 이같이 고도의 율법으로 다듬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음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 열도(熱度)가 일초 일초 상승되어야 하나님 안에 있다가 되고 자유율법을 지켰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다그치시니 다른 생각을 하려야 도저히 할 수 없었으므로 나중에는 오십 평생 부르던 본인의 이름도 나이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완전히 백지상태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밀실에서 연단 받는 식구들 가운데 조희성 주님의 나이가 제일 많고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와 이긴자도 조사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이 조씨라는 것은 알 것 같은데 이름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 내 이름이 무엇이더라?'

이름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형제들에게 물어보면 미쳤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이름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은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나라는 의식이 완전히 죽어지거나 자신의 이름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 그 인간적인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주체의식으로 거듭난 중생자가 되어 묵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썩은 피가 나오면서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게 된 것인데, 그 썩은 피는 옛사람의 나라는 주체의식을 주장했던 마귀가 죽어서 시체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가운데, 밥 먹으러



▲ 격암유록 은비기에 예언된 노고산 자락의 밀실, 이곳에서 조희성님이 (이긴자)가 되셨다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해와 이긴자의 큰 아들이 두 주먹을 쥐고 별안간 주님의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주먹이 무지무지하게 세기에 몸이 왜소한 해와 이긴자의 큰아들쯤은 한 대 같으면 그대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주먹 따귀를 맞고도 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하고 감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여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니 그렇게 화가 나서 주먹 따귀를 때린 사람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되는 해와 이긴자가 다른 사람들 집중해서 사랑을 안 하는데, 조희성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일일이 지적을 하고 나가니 시기가 난 것입니다. 순간 화가 나서 때렸지만 조희성님의 기도애 마귀가 죽으니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때린 것이 부끄러워 도망가다시피 달아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떤 사람도 그런 시험에 걸리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시험을 이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해와 이긴자께서 밀실 식구 삼십여 명을 모아놓고 주님이 이긴자가 됐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조사장이 이긴자가 됐다!"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죠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니 해와 이긴자께서 즉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겼다!"

'또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기셨나이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긴자가 되었다고 한 날이 1980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란죄'에 걸려 넘어진 것이 1980년 4월 초순경이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매달리기 시작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서야 비로소 완전히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산천초목이 이긴자의 출현에 춤을 추고 감격하였다

'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희성이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완성자가 되셨죠'라고 주님이 마음속으로 응답하니 해와 이긴자께서 깔깔대고 막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성자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를 말하며 또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 조희성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에서 시작하여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까지 7단계를 거치면서 마귀의 비밀을 파악하여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재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또 이겼다!'는 말을 들은 그날 지계를 짊어지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이긴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산에 가니 굵은 나무가 주님을 향해서 허리를 구부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한 다음에 나뭇가지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거듭하며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풀들도 춤을 추는데 땅속에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풀이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하며 그 자리에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풀을 보니까 뽕이 있는데 땅속에 뿌리를 박고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긴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육천년 만에 너희들에게 영생 줄 구세주가 나왔기에 이렇게 춤을 추는구나. 말은 못해도 너희들은 다 알고 있구나!"하고 조희성님은 말하는 동시에 생각하기를, '야!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니 산천초목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로구나.'라고 여겼습니다.

'또 이겼다'가 돼서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가니 "이제는 네가 완성자가 됐

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희성이 속에 있는 마귀를 죽이시고 하나님이 완성자가 되셨죠'라고 주님이 마음속으로 응답하니 해와 이긴자께서 깔깔대고 막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성자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를 말하며 또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전지전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 조희성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에서 시작하여 일곱째 천사 조희성님까지 7단계를 거치면서 마귀의 비밀을 파악하여 이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재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조희성은 마귀 중의 괴수 마귀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조희성 마귀를 때려잡아 소변으로 피를 3년간 쏟게 만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손톱 발톱도 다 빠지고 새로 돌아오며, 피부도 수십 번 새로 나는 과정을 겪었으며, 손가락이 뒤로 휘어 손등어리에 가서 닿는 정도로 뼈도 어린아이처럼 물렁물렁하여졌습니다.

상체를 뒤로 젖히면 머리가 발뒤꿈치의 땅에 닿곤 하였습니다. 계속 소변으로 피가 쏟아지는데 몸은 더 가벼워지며 은혜는 점점 강하게 연결되고 나중에는 대변으로 시커먼 핏덩이가 쏟아졌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피로 새로 조성되어 완전히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조희성이를 형성했던 피는 다 소변으로 쏟아져 나가 없어지고 온전한 신 하나님의 피로 가득차게 된 것입니다. 이름도 잊어버리고 나이도 잊어버리고 집 주소도 집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첫회》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 개운조사(開雲祖師)가 중국의 불공화상(不空和尚)으로부터 경을 전해 받다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 중생들이 불 법 승을 삼보라 하여 귀의처로 삼고 그 곳에 의지하는 것은 참이 아닌 사되고 거짓된 법이다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수 없듯이 나를 갈고 닦아서 무아(無我)를 만들 수는 없다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 불경(佛經)을 가리켜 대장경(大藏經)이라 하며, 대장경이란 비밀히 감춰져 있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5. 겁수품(劫數品) / 한 비구(比丘)가 있어서 세존께 묻기를, '겁(劫)에 한계(限界)가 있습니까?' 하니...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 미륵여래께서 감로(甘露)의 비를 내리시어 일체 중생의 미혹(迷惑)과 번뇌(煩惱)의 불꽃을 다 말하신다
7. 선지식품(善知識品) /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선지식(善知識)이 없었고,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이 없었으며...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 미륵여래께서는 1980년(북방불기 3007년), 50세의 나이로 성도(成道)하여 세상에 나오신다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 미륵여래께서는 온 우주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시고, 항하(恒河)의 모래와 빗방울 수효까지도 아신다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 불법(佛法)의 근본이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해탈(解脫)하는데 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 서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라는 제목으로 연재될 내용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불법(佛法)의 진의(眞意)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전혀 새롭게 밝혀 놓게 될 것이다. 불교(佛敎) 자체의 일대 혁명이며, 불교뿐만 아니라 종교(宗敎)라는 것 자체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이다.

예를 들어 진실한 삼보(三寶)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의불(歸依佛), 귀의법(歸依法), 귀의승(歸依僧)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신 진실한 삼보는 미묘하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다.

흔히들 알고 있는 북방불교(北方佛敎)는 대승(大乘)불교이고, 남방불교(南方佛敎)는 소승(小乘)불교라는 개념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진실한 대승(大乘)의 의미는 모든 중생이 다 한 가지 도(道)를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유불선(儒佛仙)의 합일(合一)이 대승이요, 현대적으로 말해서 모든 종교적 철학적 이데올로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대승의 뜻이라는 것이다.

대열반경은 석존께서 경이 설해진 장소로는 쿠시나성 아리라 발제하 강변 사리나무 사이에서 열반하기 전 하루 낮과 밤 사이에 설한 경(經)이다.

열반경에 따르면 대열반이란 법신(法身)과 반야(般若)와 해탈(解脫)의 셋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진실한 부처는 법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상한 육신이 아닌 상주(常住)이며 무명(無明)에 고(苦)가 아닌 낙(樂)이며 반야(眞我)이며, 청정하여 번뇌가 없는 존재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80세에 입멸(入滅)하신 석존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불교 교리에 따르면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실한 부처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 중생과 마찬가지로 입멸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과연 그런가? 석존의 청정한 육체나 중생의 더러운 몸뚱이나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인가? 그렇다면 도를 닦다가 죽는 것과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과

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죽는 것 자체가 고(苦)이거늘 생로병사의 사고(四苦)를 진정 해탈하였다면 늙고 병들고 죽어서는 안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석존의 수제자였던 가섭(迦葉)까지도 석존의 열반을 의아하게 생각하였다는 점이다. 석존은 자신을 분명히 여래(如來)라고 하였고, 여래는 분명히 금강신(金剛身)이라고 하였으며, 여래의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느닷없이 열반에 든다고 하니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간청하였다.

"부디 오래 계시어 감로의 정도로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시오"

"여래께서 상락아정(常樂我淨)을 깨달아 아셨으면 어찌하여 일 겁도 못 사시고 열반에 들어가시려 합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열반에 들겠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의하면 석존께서 상락아정을 깨달아 아셨다면 감로의 정도를 펼쳐 자기들을 제도하여야 하는데 열반에 든다고 하니 차마 왜 돌아가시냐고 항의는 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따라 죽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상락아정을 얻는 여래는 불로불사(不老不死)하기 때문이다. 열반경 2권 수명품에 있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감로의 정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상세히 밝히는 것이 석존께서 열반경에 갖추어 둔 비밀을 해독하는 열쇠이다. 앞으로 연재되는 본문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실 것을 권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이라는 제하의 본문 내용은 열반경 요점을 뽑아서 석가세존께서 마지막에 중생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유교(遺敎), 즉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간결하게 알아보고자 꾸민 열반경 요해(要解書)이다. 다른 경전과 달리 비밀장(祕密藏)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열반경! 과연 어떠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필자는 여기서 열반경 속에 갖추어진 비밀을 해독하기 위해서 화엄경, 증일아함경, 법화경, 능엄경, 석가계경, 선불가진수어록 등 많은 불경을 참고로 하였다는 점을 밝히어 둔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 속의 진짜 하나님 말씀 8탄
The True Word of God in the Bible - Part 8

구원론(순교자론):
항상 나를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Soteriology (martyr theory):
You must always abandon yourself and be reborn by the Holy Spirit to be saved.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나니라 (요한복음 3:5)
Unless a person is born of the Holy Spirit, he/Sh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God (John 3:5)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사람을 입이라 (에베소서 4:22)
Throw away your old ego and put on the new person, created after God in righteousness, truth, and holiness (Ephesians 4:22)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식으로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골로새서 3:9)
Having put off the old ego with its practices, you have put on the new person, being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God (Colossians 3:9)

구원은 의로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뜻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8)
Salvation does not come from works of righteousness, but from God's love and mercy, through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purity of heart. Blessed are those who ar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Matthew 5:8)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고린도전서 2:10)
For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1 Corinthians 2:10)*

by Alice